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박주화·베른하르트 젤리거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 이상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주화(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

베른하르트 젤리거(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장)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KINU 정책연구시리즈 17-03

발행일	2017년 10월 30일
저자	이상신, 박주화, 베른하르트 젤리거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세일포커스 (02-2275-6894)
ISBN	978-89-8479-884-7 93340 독일 통일[獨逸統一], 독일 통일 과정[獨逸統一過程] 340.925-KDC6 / 320.943-DDC23 CIP2017028376
가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차례

요약	7
I. 들어가며	9
II. 독일 통일의 전조(前兆)	15
III. 동독 내부의 저항	21
IV. 서독이 언론 및 정치 분야에서 동독에 미친 영향	27
1. 언론 보도를 통한 영향 - '언론 혁명'으로 인한 동독의 몰락	29
2. 서독 정치인들의 초기 통일 노력	35
3. 민권 운동과 정당의 영향	42
4. 동독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서독의 제품들과 동서 체제경쟁 및 독일통일	46
V. 동독에서 비밀 정보기관들의 영향과 첩보활동	51
1. 연방정보부와 국가보위부	53
2. 사민당 동독 사무소	57
3. 동독의 슈피겔 사건	59
VI. 결론: 동독의 다면적 혁명(multifaceted revolution)과 서독의 영향, 그리고 한국에의 교훈	6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참고문헌	71
부록	75

독일 통일을 가져온 요인들은 크게 외부에서 온 충격, 그리고 동서독 내부의 변화와 움직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인 내부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동독 내부의 저항, 서독 언론의 영향 및 서독 정치인들의 통일 노력, 동독 내부에서 싹튼 민권운동과 정당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독 비밀정보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독일 통일은 단순히 두 상이한 정치 체제의 합병이라기보다는 동독을 둘러싼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동독의 ‘다면적 혁명(multifaceted revolution)’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독 주민들에 의해 시작된 이 다면적 혁명은 결과적으로 양독의 통일이 라는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다.

서독의 상품과 사상, 언론, 정치인들과 비밀 정보기관을 비롯한 인적 교류를 통해 서독은 통일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대개 마스터 플랜을 따른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서독의 우월한 경제와 정치 제도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분단을 불필요하게 없애기보다는 적어도 덜 심각하게 만들고자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서독은 때로는 뒤에서 동독의 실제 변화를 관망하거나 때로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자주 오해를 받았다. 서독의 역할은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세력들의 대단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 정부의 상대적인 수동성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항상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 정부의 수동성은 결과적으로 여러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서독 체제의

요 약

우월성을 동독 주민들에게 인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독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인내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설적인 교훈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인내심과 비전을 갖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나, 그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독일, 동서독 통일, 통일 정책, 다면적 혁명, 대동독 정책

I. 들어가며



민족공동체 회복과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 통일 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독일 통일 모델에 대한 여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평화로운 통일의 중요한 모델로서, 독일 통일 연구는 통일 연구원의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비추어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27년이 흐르는 동안 질과 양 모든 면에서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 연구는 지금까지 집중 조명되지 못한 독일 통일과정의 비공식적 측면을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최근 북핵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한 연구의 수요가 늘고 있다. 여러 체제 전환 시나리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평화로운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를 통해 통일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통일 직전까지도 서독과 동독 주민들은 통일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했으며, 그다지 통일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독일 통일을 가져온 요인들은 크게 외부에서 온 충격 - 소련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에서의 혁명 등 - 과 동서독 내부의 변화와 움직임 - 동독 정권의 압박한 붕괴, 민권운동, 동독 반체제 인사들의 민주화 및 인권운동, 동서독 간의 꾸준한 교류 등 - 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자인 내부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동독 내부의 저항, 서독 언론의 영향 및 서독 정치인들의 통일 노력, 동독 내부에서 싹튼 민권운동과 정당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독 비밀정보기관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론을 미리 소개하면, 독일 통일은 단순히 두 상이한 정치 체제의 합병이라기보다는 동독을 둘러싼 다양한 내외부적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동독의 '다면적 혁명(multifaceted revolution)'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독 시민들에 의해 시작된 이 다면적 혁명은 결과적으로 양독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변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독일 통일이라는 결과에 가려진 이 동독 혁명의 원인과 과정, 주체적 노력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떨리는 그 뿌리를 분단 직후인 4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동독의 다면적 혁명 과정의 주체는 동독 시민들과 양심적 지식인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서독 정부를 결코 방관자였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서독 정부는 동독의 정치엘리트, 정당, 시민사회, 언론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통일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이 외부적 호조조건과 맞물렸을 때 동독의 다면적 혁명을 통한 독일 통일의 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해 독일 통일 당시 주요한 역할을 맡은 동서독의 정관계 및 언론계, 학계 인사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7년 4월 19일 베를린의 독일청산재단에서 진행된 이 인터뷰에는 동독 수상을 역임한 로타 드 메이저(Lothar de Maizière), 성직자 출신으로 동독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 동독 주재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 칼-하인츠 바움(Karl-Heinz Baum), 동독의 교회 활동가 마리엔 버틀러(Marianne Birthler), 전독(全獨)문제연구소장 데틀레프 쿤(Detlef Kühn) 등이 참석하였다. 인터뷰의 생생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논문의 각 해당 부분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을 첨부하여 참조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동독 내부의 저항 사례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서독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필두로, 1953년 봉기 이후에 로베르트 하베만(Robert Havemann)이나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독 내부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때로는 억제되고 때로는 강경한 반대가 항상 있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서독 언론의 영향, 특히 통일 직전 시기에 있었던 서독 언론의 영향과 서독의 공식 정치 및 서독 정치인들의 영향을 고찰하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서독 비밀정보 기관의 역할과 소위 동독 슈피겔 사건의 사례를 살펴본 후 결론을 맺겠다.

II. 독일 통일의 전조(前兆)



1961년 이래 독일을 독일연방공화국(이하 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이하 동독)으로 갈라놓은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붕괴한 것은 독일 사회는 물론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같은 해 중유럽 및 동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평화 혁명은 유럽 대륙에서 동독을 비롯한 공산주의 정권들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대변동으로 인해 정계와 학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배경과 영향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1980년대 혁명들의 정치적 전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록 서방 국가들이 서독과 동독을 두 개의 주권국으로 인정했지만, 국가의 영토를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분리하고 베를린 장벽을 구축한 것은 단일민족인 독일민족의 정체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독일 통일에 대한 의지는 1949년 이래 독일 기본법의 전문(前文)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기본법 제23조는 서독에 의한 동독 통합의 전망을 견지하고 있으며, 독일 통일에 대한 헌법적 기초가 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러한 통일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먼 미래에나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¹⁾ 1989~1990년 당시 구동독 지역의 기독교민주연합당(이하 기민당) 당수를 역임한 로타 드 매지에르(Lothar de Maiziere)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 통일은 자녀들 세대 혹은 손자 세대에나 가능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1990년 3월 18일에 치러진 동독 최초의 인민의회 선거(Volkskammerwahl)는 독일 국민의 정서에서 중요한 단절을 보여주었다. 1990년 봄처럼 독일 통일에 대한 의지가 그토록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적은 없었다. 라이프치히에 위치한 중앙청년연구소(Leipziger Zentralinstitut für

1) Goertemaker, Manfred: Beginn der deutschen Einigung,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34~37.

Jugendforschung)와 서독시장연구소(Westdeutsches Nationales Marktforschungsinstitut)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한 동독 시민들의 지지율은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의 붕괴 시점과 1990년 봄 사이에 48%에서 75%로 증가했다.²⁾ 동독 인민회의의 민주적 선거 결과는 통일 과정과 헬무트 콜 총리가 제시한 ‘독일 연대(Allianz für Deutschland)’를 통한 경제 및 화폐통합제도의 도입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³⁾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동유럽 국가에서 일어난 혁명 이외에도 동독 정권 붕괴의 압박, 서독 정치인들의 개입과 서독의 영향을 받은 동독 정치인들을 꼽을 수 있다. 동독 내부의 노력, 민권 운동 시도, 반체제 인사들은 공산주의 국가 권력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었으며, 정권 그 자체는 통일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서독 정치인들과 정부 대표들 그리고 비밀정보기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이 글에서는 우선 독일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다.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 라이너 에펠만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80년대 초반 당시, 독일 통일은 독일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문제가 아니었다. 냉전 상황이었고, 세계 전체가 나뉜 것이 모두 익숙한 때였다. 전쟁의 결과에 세계가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80년대 동독에서 목사 활동을 할 때 서독 의원들이 동독을 방문한 적이 있다. 서독

2) Goertemaker, Manfred: Volkskammerwahl 1990,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44~47.

3) Election results of the chamber's election on March 18th, 1990: 48% CDU, 21.9% SPD, 16.4% PDS, 5.35% Alliance of Free Democrats, 2.9% BUENDNIS 90.

의원들을 만나면서 동서독 간의 상황에 대한 의견 교류를 했다. 이들의 방문은 경외적인 일이었는데, 서독 언론에서 동독의 저항 움직임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찾아왔던 것이었다. 그때 대화에서 독일 문제의 구조와 의원 업무 및 과제에 대해 서독 의원들은 독일과 유럽을 계속 언급했다. 당시 서독 의원들이 말하는 ‘독일’은 서독만을 의미했다. 나는 동독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무안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서독 의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동서독을 서로 별개의 두 개 국가에 바탕하고 있다는 것, 즉 동서독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국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당시 모두가 서독만이 독일을 대표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할슈타인 독트린이다. 서독의 헌법인 기본법에서 독일 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독일 통일은 점점 멀어졌고 서독 정치인들 중에 독일 통일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진하려던 사람은 없었다. 빌리 브란트 전 연방 총리가 그 침묵을 깨고 동독 정치인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며, 서로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해왔다.”

- 마리엔 버틀러 (동독의 교회 활동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우리가 통일된 것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과 서방의 지지자들을 통해서 무너질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1989년 당시 가장 큰 마찰 또는 분쟁은 동서독 간이 아니라, 동독 주민과 동독 정부 간의 마찰이라 생각한다.”

Ⅲ. 동독 내부의 저항



동독 내부의 저항은 194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동독 내부의 저항과 반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술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일 연방의회 내 조사위원회(Enquete-Kommission)가 1982년에 출판한 『역사의 재구성과 독일에서 사회주의통일당 정권의 영향』이 그러한 연구들의 한 예이다. 2차 대전 종전과 민주적 의회 선거 사이에 있었던 1953년 6월 17일의 저항은 경제적, 정치적 불만들과 사회주의통일당(이하 사통당)에 대한 저항이었지 구체적으로 소련의 주둔 세력에 대한 저항은 아니었다. 독점주의 정책들, 노동계층에 대한 억압, 자신들의 정치적, 역사적 유산을 지키려고 했던 사회민주주의자와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구속수감 및 초기 탄압,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이 사통당과 통합 이후(구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 서독 사민당과의 커넥션 등이 초기 저항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러한 초기 저항은 특히 1948~1950년 사이에 학원가, 특히 대학생과 교수를 통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베를린 자유대학은 '강의와 연구의 이념적 획일성에 대해 저항'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소 1,200여 건의 구속 사례가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단체는 라이프치히의 학생 단체인 벨터 그룹(Belter-Group)으로, 이 단체의 회원들은 반사회주의 저항으로 인해 처형되거나 러시아의 노동 수용소로 추방되었다.

동독 내에서의 반대 혹은 반체제 활동은 참가자들에게는 큰 위협을 동반한 것이었다. 국가보위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MfS)의 효율적인 감시방법과 첩보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널리 알려질 정도였다. 체제 전복적인 성향들은 엄격히 처벌되었다. 정치적 활동이나 예술과 문학에 서독의 사상이 포함될 경우, 대부분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반체제 인사들은 최소한의 직업을 가지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며, 가택연금, 투옥, 동독에서의 추방과 같은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 15년 감옥형은 예사였다. 예를 들면, 1953년 6월 17일 노동자 봉기는 소련 군에 의해 강제로 진압되었으며 시위 참여자들에게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특히 사형이 많이 집행되었는데, 벨트 그룹 설립자인 헤르베르트 벨터(Herbert Belter)를 비롯하여 이 단체의 창립 멤버들이 처형되었다. 서독에 대한 절차적 접근과 개방이 이뤄진 이후인 1987년이 되어서야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정권 하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

저항에 대한 일련의 이유는 공산주의 단체나 서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독의 반체제 단체와 서독이 접촉한 것이었다.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반체제주의 사상을 가진 단체 역시 동독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밖에도 국가보위부에 의한 지속적인 탄압과 정부의 접근법 역시 그 자체로 저항의 이유가 되었다. 탄압의 방법으로는 비밀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야당 전복을 위한 음모 시도, 반체제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기소 등이 포함된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민권 운동, 예술가, 작가, 음악가들이 동독에서 반공산주의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 가수 겸 작가 볼프 비어만(Wolf Bierman)은 반공주의자로 활동하다가 나중에 강제로 국외 추방되었는데, 이 사건은 문화계에서 널리 알려져 국경을 넘는 시위사태로 이어졌다. 또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서독의 사상은 문자 그대로 동독의 안방까지 침투해 들어갔다. 또한, 점차 많은 성직자들이⁴⁾ 동독의 문제점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헌신적으로 동독 반대 운동에 참가하였고, 그로 인해 수천 명의 동독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평화와 인권 이니셔티브(IFM)와 같은 반대파의 민권 활동과 반공산주의 학생 단체 및 정당 활동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투쟁적

4) 예를 들어,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를 한 성직자이자 신학자인 라이너 에펠만(Rainer Eppelmann)의 경우가 있다. 그는 후에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으로 봉직하기도 했다.

인 환경에서 수백 개의 단체가 생겨나 환경권, 인권, 민권에서부터 평화 운동까지 폭넓은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이러한 단체 대부분은 성직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들에 대한 서독의 개입은 특히 정치적 채널을 통해 1980년대에 이뤄졌다. 동독의 저항운동 단체들은 서독의 정당이나 단체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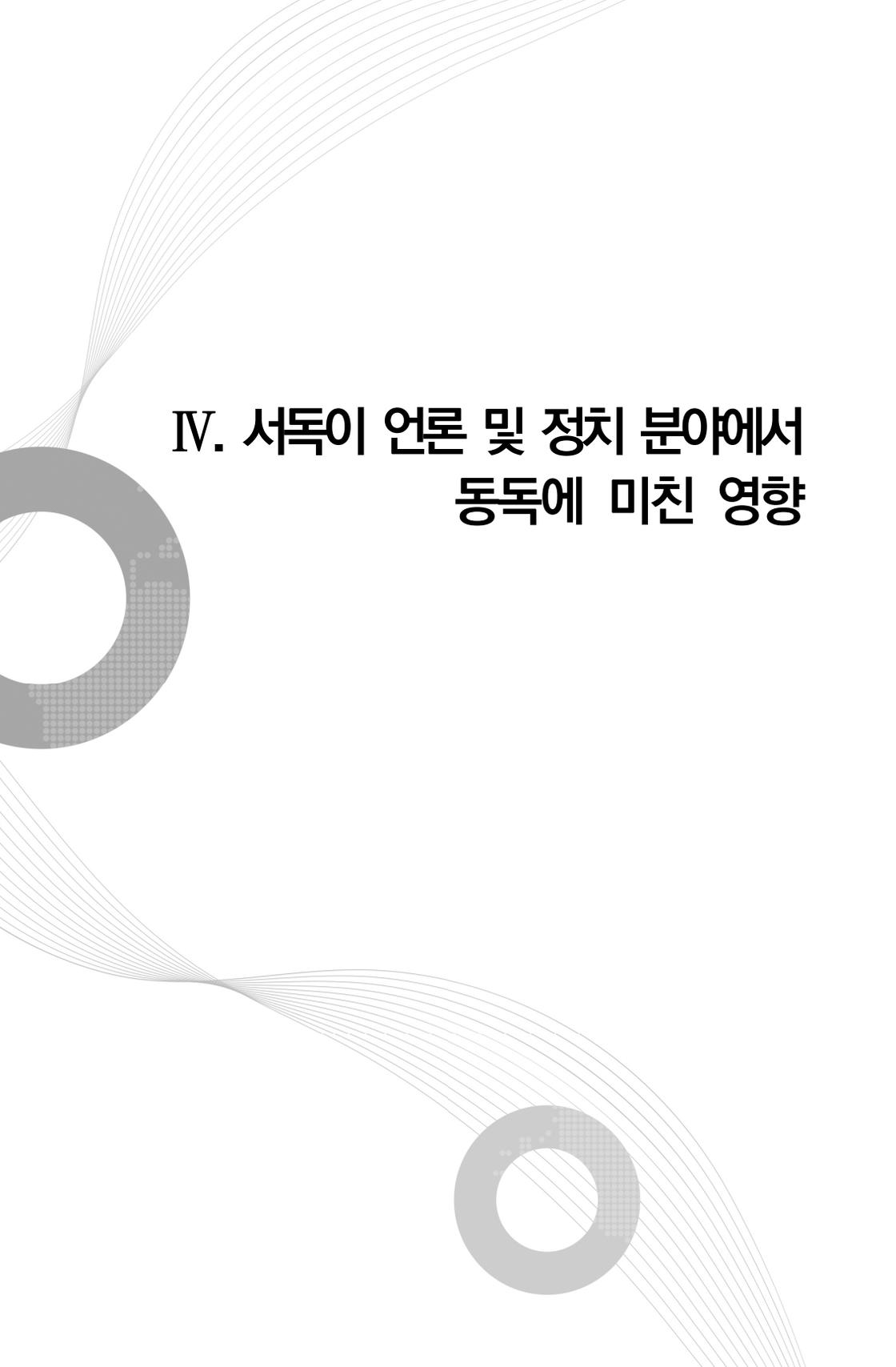
- 라이너 에펠만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동독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아주 작은 분야 혹은 공적 공간은 단 하나였다. 그것은 기독교의 공간이었다. 천주교 또는 개신교를 막론하고 교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 발언이 허용되었으며, 민주주의적 방식을 통해 집사를 선출하였다. 이는 교회가 민주주의를 연습하는 장으로 역할을 한 것이었다. 이러한 종교적 공간 안에서 서클 모임이 형성되었다. 동독 시민들은 이런 교회 내 서클에서 핵무기, 평화, 환경, 인권 등을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런 서클은 침묵을 깨는 기회였고, 그 안에서 동독 시민들은 두려워하는 것, 희망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말로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문서화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인사에게 편지를 써서 세계평화를 위해 핵무기 철수, 군비 강화 반대 등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지배 권력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하는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했으며, 기존 정당 외에 다른 정당을 우리가 창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

“이러한 동독의 작은 정치적인 활동이 서독 식자들 및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서독에서 인터뷰와 취재를 위해 동독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서독 언론을 통해 동독 주민들의 생각을 서독이 알게 되었다.

한편, 동독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고 동독 정부가 판단하면서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수감되고,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수감한 결과, 공포만을 조성한 것 아니라 연대감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수감자들의 석방을 위한 운동도 시작되었다. 이를 계기로 진정한 독립 정당을 설립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었으나, 아직 아주 작은 서클 내에서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연대 활동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체코에서 다발적으로 동독을 지지하는 연대 활동이 있었다. (독일 통일 이후) 많은 동구권 국가에서 향후에 공산 지도층이 권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동구권 국가에도 자기 해방, 평화 혁명, 자기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가 왔으며 자유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이다. 동독 시민들은 서독 수준의 생활을 원했고, 변명을 희망했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On the left side, there are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The upper one is a dark gray ring with a white center, and the lower one is a solid dark gray ring. Both rings have a fine grid of small white dots on their right-hand side.

IV. 서독이 언론 및 정치 분야에서 동독에 미친 영향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동독이 서독을 통합할 가능성은 약화하고, 반대로 서독이 동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정치 변화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 정권 때 더 많은 양보와 협력으로 이어졌다. 철의 장막은 허술해졌다. 서독은 정치, 사회, 언론 등 동독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상당히 엄격한 국경 통제조차도 인쇄 매체와 음악, 문학, 기타 동독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자료들의 밀반입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다.

1. 언론 보도를 통한 영향 - ‘언론 혁명’으로 인한 동독의 몰락

이러한 점진적 개방은 동독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동독에서 라디오 방송은 사통당의 당 지도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다. 사통당의 프로그램 계획은 당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간주되었다. 사통당의 대언론 정책은 당의 선전도구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학자인 귄터 홀츠바이시히(Guenther Holzweißig)에 의하면, 언론은 시민들에게 공산주의를 납득시키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인간을 만들어”⁵⁾내야 했다. 사통당 정책에 유용한 프로그램과 정보만이 정책 의제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사통당의 언론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서독의 프로그램들은 동독 전역에서 전파를 탔다. 다만, 동독의 지역 중 전파가 미치지 못하는 소위 ‘무지의 계곡(Tal der Ahnungslosen)’은 예외였다.⁶⁾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동독 시민이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하지는 않았다. 동독인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했는지를 알아내는 한 가지 악명 높은 방법은 어린이

5) Meyen, Michael Meyen/ Fiedler, Anke: Blick ueber die Mauer: Medien in der DDR, i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online, 2011.

6) 부록 2 참조.

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이미지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동독과 서독 모두 저녁 시간대에 ‘잔트맨헨(Das Sandmännchen)’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이 인기 있는 프로그램의 등장인물들 모습은 동독과 서독 방송에서 상당히 달랐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방송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을 정기적으로 그리도록 했다. 만약 서독 방송에 나오는 인물을 그린 경우 주 안보기관이나 경찰이 그 아이의 부모를 방문했다. 이 사실은 서독 텔레비전 시청에 대한 두려움이 동독에서 상당히 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점점 많은 동독 시청자들이 동독의 자체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서독 텔레비전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기 시작했다. 서독 언론 보도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의 부류는 지식인 집단, 성직자들, 예술가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시민들을 망라하였는데 1989년까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숫자가 점차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의 텔레비전 채널을 살펴보면 동독과 서독 모두 상대방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폭로했다. 즉, 동독 텔레비전은 주로 경제 위기, 실업, 파업, 임대료 인상, 빈부 격차 등에 대해 보도했다. 반면, 서독 텔레비전은 모든 주제를 정책의제로 몰고 갔는데 그러다 보니 동독에서는 검열 대상이 되고 말았다. 서독 텔레비전에서 다루는 주제는 시민들의 정치적 온정주의(paternalism),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탄압, 여행금지, 도피 시도, 잘못된 경제 계획과 경영 그리고 낮은 생활수준 등이 포함되었다.⁷⁾

서독 텔레비전은 동독의 자체 프로그램에 강력한 경쟁대상이 되어 동독 프로그램의 시청자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동독 시청자들 사이에서 동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7) Meyen, Michael Meyen/ Fiedler, Anke: Blick ueber die Mauer: Medien in der DDR, i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online, 2011.

가고 있던 차에 서독에서는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점점 더 많은 서독 텔레비전 포맷이 복제되었고, 서독의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이 동독에 수입되어 방영되었다. 사통당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언론 독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1989년, 즉 ‘전환(Die Wende)의 해’에 미디어 환경, 특히 인쇄 매체 부문을 둘러싼 반대가 여기저기서 고조되었다. 일간지 튀링어 알게마이네 차이퉁(Thueringer Allgemeine Zeitung)의 편집장 세르게이 로흐트호펜(Sergej Lochthofen)에 따르면, ARD와 ZDF같은 서독 공영 텔레비전 채널의 프로그램 컨텐츠는 1989년 말에 이미 공개되었다. 동독의 미디어는 기존 권위에 대해 거부하면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⁸⁾

커뮤니케이션 학자이자 언론인인 미하엘 마이엔(Michael Meyen) 교수는 서독 언론의 영향, 특히 동독에서 서독 텔레비전의 중요성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오판의 이유는 언론의 사용이 점차 증대했던 1989년 가을의 사태들(Wendeherbst) 때문인데 잘못된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마이엔 교수의 지적이다. 위기 시에는 정보에 대한 대중의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언론 소비의 증가는 당연하다. 실상은 1980년대에 동독 시민들은 서독 텔레비전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동독 텔레비전에 대한 관심은 급격히 감소하였다.⁹⁾

동독의 언론은 서독 텔레비전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시청자를 잃었다. 크리스타 브라우만(Christa Braumann)은 이러한 현상이 동독체제가 붕괴하기 직전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8) Heinen, Guido: "Wir haben uns tastend vorwaerts bewegt," in: Haller, Michael/ Lutz, Muekke: Wie die Medien zur Freiheit kamen - Zum Wandel der ostdeutschen Medienlandschaft seit dem Untergang der DDR, Köln: Halem, 2010, S. 27~40.

9) Meyen, Michael: Kollektive Ausreise? Zur Reichweite ost- und westdeutscher Fernsehprogramme in der DDR, in: Publizistik, Heft 2, Juni 2002, 47. Jahrgang, S. 200~220.

내린다. 당의 기초가 무너졌고, 당 지도자들과 당원들이 점차 분열되었으며, 언론과 시청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¹⁰⁾

서독 언론은 1989년, 특히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던 그 날 밤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9년 여름, 서독 언론은 헝가리 국경을 넘는 동독 시민들의 집단 탈출에 대해 광범위하게 집중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 중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과장된 표현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는데, 예를 들어 ‘난민들의 강물(stream of refugees)’과 같은 표현은 실제 난민들의 숫자와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는 탈출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난민들이 국경을 넘는 과정을 동행 인터뷰하여 탈출을 위한 지침서를 제시하는 듯 했다. 뿐만 아니라 서독에 도착한 동독 난민들이 서독 시민들로부터 따뜻한 환영과 격려를 받는 모습들을 반복해서 방영했다.¹¹⁾ 1989년 11월 장벽이 붕괴되기 직전 몇 시간 동안과 붕괴 이후 며칠 동안 서독 언론, 특히 ARD와 ZDF 등 공영 방송사들은 여러 사태들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동독 시민들이 서독 텔레비전을 통해 국경 장벽이 곧 개방될 것에 대해서 알게 되자 수천 명의 구동독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서독 언론은 19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¹²⁾

따라서, 언론은 독일 통일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오랜 분단과 그 이후 점진적 화해의 시기를 거치면서 서독 언론은 동독을 지배하던 사회주의 모델에 대한 반대이론(antithesis)

10) Braumann, Christa: Fernsehforschung zwischen Parteilichkeit und Objektivitaet. Zur Zuschauerforschung in der ehemaligen DDR. In: Rundfunk und Fernsehen, 42. Jg., 1994, S. 524~541.

11) Bruecher, Lars: Das Westfernsehen und der revolutionaere Umbruch in der DDR im Herbst 1989, Magisterarbeit im Fach Geschichtswissenschaft an der Universität Bielefeld, 2000.

12) Bayerischer Rundfunk (Ed.): Die Medien und der Mauerfall, in: BR Fernsehen, 27.10.2014.

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악셀 슈프링어(Axel Springer) 그룹의 최대 대중신문인 빌트(BILD)와 같은 주력 대중 언론매체들은 동방정책(Ostpolitik)의 수립 단계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동독의 요구 때문에 독일 통일을 포기했을 때에도 독일 통일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나아가 이러한 언론들은 낙관적인 어조를 사용함으로써 1989년과 1990년 독일 통일로 이어지는 시기에 영향을 미쳤다. 만약 이 당시 일부 좌익 언론들처럼 덜 낙관적인 어조를 사용했다면 통일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훨씬 저조했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에 미온적이었던 매체 역시 중요하다. 그 이유는 동베를린을 포함한 동독 방문자들이 이러한 매체들을 접촉했을 뿐 아니라 동독으로 반입해서 가져갔기 때문이다. 서독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동시에 서독과 정보를 공유하는 이러한 상황은 유명한 영화 『타인의 삶(Das Leben der Anderen)』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영화는 동독의 고위 공직자들이 슈피겔(Spiegel)지를 통해 알려졌던 1978년 ‘슈피겔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1989년과 1990년 전환의 해에 서독 대중언론의 중요한 기능은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과 같은 주요 도시에 대한 정규 보도를 통해 대중 시위를 직접 독려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플라우엔(Plauen)에서부터 로슈톡(Rostock)에 이르기까지 동독 전역에 걸쳐 시위를 독려했는데 그 이유는 무장한 병력이나 소련의 주둔군(Russian Western Group)¹³⁾이 더 이상의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자들이 자연스럽게 동원되었다. 서독 텔레비전에서는 보여주지만 동독 텔레비전에서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맹비난한 시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서독 텔레비전에서는 특별한 아젠다나

13) 동독에는 약 45만 명의 소련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Russian Western Group’이라 불렀다.

대본도 필요 없었으며, 특별히 시위를 편들 필요조차 없었다. 시위가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동독의 다른 지역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 라이너 에펠만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대부분의 동독 사람들은 서독의 라디오 및 TV 시청이 가능했다. 짐작컨대, 동독 주민의 85% 정도는 매일 서독 TV를 시청했을 것이다. 자본주의 삶에서 어떤 기회가 부여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서독이 동독보다 훨씬 못산다는 동독 정부의 선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점점 서독과 비슷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동독 주민사이에서) 커지기 시작했다.”

“**(교회 내부 서클에서 시작된 동독 주민들의 정치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이로 인해 미리 허가받지 않은 시위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동독 주민들이 베를린과 라이프치히 같은 도시에서 퇴근 후 얼굴을 드러내 놓고 공개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현재 동독에서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몇 년 후에는 종교단체의 기독교인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 외부에서 단체 또는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동독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포기한, 무조건 동독을 벗어나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람들도 시위를 시작했고, 특히 주동독 서독 대사관 및 바르샤바나 부다페스트 등에 있는 서독 대사관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동독 지배층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반혁명적이라고 생각하였고, 행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일제히 통제했다. 그럼에도 동독 주민들이 알게 되었던 것은, 서독 기자들이 이를 보도한 덕분이다.”

- 마리앤 버틀러 (동독의 교회활동가)

“동서독은 연락이 끊긴 상태가 아니었는데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언론 매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큰 효과를 가져왔다. 1) 동독 주민들이 서독의 TV 를 시청하고, 서독에 대해 알게 되었고, 2) 서독 역시 동독에 대한 상황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서독의 주민들이 동독의 친지들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했고 동서독 주민 간 개인적 유대를 맺는 것이 가능했다. 언론을 통해서 서독을 향한 환상, 유혹 혹은 열망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 칼-하인츠 바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기자)

“나는 1977년에 동독으로 특파되었다. 내가 서독에서 동독으로 특파될 수 있던 것은, ‘특파원은 가능하다’라는 기본조약 항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슈타지의 감시를 받았다. 통일 이후 나에 대한 슈타지 문서를 열람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시민 기자주의의 전형적인 대변인으로서, 반체제적 성향이 짙다.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시스템을 방어하는 사람으로서, 사회주의의 적이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사교성이 좋으므로 동독에서 많은 지인을 만들고 있다. 타인에게 귀기울여 얻은 정보를 분석한다. 학술적인 사람은 아니고, 정치적 공격성도 없다. 하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인물로 간주된다. 비정치적인 동독 주민들로부터 자기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다.’”

2. 서독 정치인들의 초기 통일 노력

대부분의 동독 시민들은 1990년 3월에 열린 인민의회 자유선거에서 통일을 지지하였다. 선거 개최 직전까지도 동독 시민들이나 동독 정부 누구도 대중의 생각을 예측할 수 없었다. 서독의 정책은 2차 세계

대전 종전 이래 언제나 통일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 1990년 사이에 통일과 관련하여 시기별로 서독의 상이한 외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일 노력에 있어서 다양한 강도의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부록 1 참고).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주역들로는 주총리, 정치인, 당원, 비밀 정보기관 직원과 민권 운동가가 있는데 이들 덕분에 독일 통일정책은 더 개방적일 수 있었다.¹⁴⁾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가. 아데나워(Adenauer) 총리: 비밀 통일 계획 ‘글롭케 플랜(the Globke Plan)’

서독의 초창기인 아데나워의 재임 기간에 통일 그 자체는 인기가 없었다. 동독은 주권 국가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주력하고 있었고, 서독의 아데나워 총리는 서독의 단일 대표성을 주창했으며 두 개의 국가라는 잠정적 해결책을 대체로 목살했다. 아데나워의 외교 정책 기조는 서독의 통합(자석 이론)이었고 독일 국가의 힘(힘의 우위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데나워는 독일-프랑스 우호관계(1963년 1월 22일 우호조약) 및 유럽 통합과 관련한 작업을 추진하였다.¹⁵⁾

아데나워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 수정된 동독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비밀리에 ‘글롭케 계획’¹⁶⁾을 착수했는데, 글롭케는 한스 글롭케 국무실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14) Glaab, Manuela: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p. 178~189.

15) Ebd.

16) Globke-Plan: Original text (ACDP, NL Globke 01-070-025/2), in: Konrad Adenauer Stiftung online, under: https://www.konrad-adenauer.de/application/files/7214/5951/6444/Globke_Plan1959.pdf.(accessed: June 6, 2017).

향후 5년 내에 통일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었다. 만약 국민 투표를 통해 통일이 부결되면 이 조약은 동서독 양국을 두 개의 주권 국가로 상호 인정하도록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3년의 『역내 평화 계획(Burgfriedensplan)』¹⁷⁾에 따르면, 서독은 향후 10년 동안 군축 및 데탕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독일 문제에 대하여는 침묵하기로 동의했다. 이 글롭케 계획은 이 기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다.¹⁸⁾

나. 연방 외무상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eder): 진전(進展) 정책

아테나워 총리 정부와 에르하르트(Erhard) 총리 정부 사이의 독일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전환은 매끄러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 외무상의 소위 ‘진전 정책(Policy of Movement)’이다. 슈뢰더 외무상은 아테나워 총리(1961년부터) 하에서 임기를 시작해 에르하르트 정부까지(1966년까지) 봉직했다.

진전 정책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슈뢰더는 이 개념에 대해서 단 한 차례만 언급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모든 사실을 새로운 방식으로 확실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가 그간 보지 못했던 결과를 보여줄 것이며 진전정책의 정반대인 강성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이 결과를 끝내 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택안을 면밀히 살펴 보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¹⁹⁾

17) German for “plan for peace between the castles”, meaning: a plan to calm down tensions between the two antagonists of east and west.

18) Konrad Adenauer Stiftung: Geheimplan fuer die Wiedervereinigung.

19) Interview with Gerhard Schroeder with the NDR on 4th November 1963.

슈뢰더 총리는 새로운 방향의 대동독정책을 모색하면서 개방 및 동독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실제로 이는 무역대표부 설치와 실질적으로 첫 내독 간 접촉인 여객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슈뢰더 총리의 생각은 국제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한다. 슈뢰더 총리는 미국과 소련 간의 데탕트 정책이 진행될 때 통일 문제를 끼워 넣으려고 시도했다. 냉전 종식 이후 데탕트의 결과로 동독을 소련에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위협 때문에 슈뢰더는 동구권에서 동독을 고립시키려고 했다. 그는 “긴장이 독일 문제를 지속시키는 반면 데탕트는 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²⁰⁾고 언급한 바 있다.

다. 에곤 바르: 동방 조약들(East Contracts)과 반역 사이

에곤 바르는 사민당의 공보담당관 겸 정치인이었는데 독일과 유럽 역사에서 ‘독일 통일의 설계사’로 기록되고 있다. 에곤 바르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 하에서 특임 대사 및 외무성 계획처장 등 여러 중요한 직책을 역임했다. 에곤 바르의 생애 전성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은 모스크바 조약과 동-서독 기본 조약 등 동방 조약들을 위한 협상들을 가리킨다. 에곤 바르는 빌리 브란트의 최측근이자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 외교 정책에 관한 한 최고의 분석가이자 신동방정책과 관련하여 정치적 줄다리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잘했다는 평판을 얻었다.

동방정책의 새로운 방향 설정을 통해 에곤 바르는 높은 인기를 누렸는데 1963년 7월 15일 독일 투칭(Tutzing)에서 한 ‘화해를 통한 기회’라는 연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연설을 통해 바르는 동독의

Bulletin 1963, S. 1736, in: Eibl Franz, S. 415.

²⁰⁾ Conversation of the Federal Minister Schroeder with American Federal Foreign Minister Rusk, 20.9.1963. in Washington, in: AAPD 1963, Dok. 349, p. 1162.

전략적 변화와 통일정책을 분명히 했다. 존 에프 케네디의 연설 ‘평화 전략’과 자유주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바르는 화해란 현 통치자들의 의지와 일치해야 하며 그에 역행해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련의 입장에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통일은 동방정책의 일부가 아니고 외교 정책에 속한 주제이다. 자유선거와 같은 ‘양자택일의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질적인 통일은 즉각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으며, 오직 미래에 단계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²¹⁾

우리는 장벽을 약함의 표시라고 보았습니다. 또는 공산주의 정권의 두려움과 자기보존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의 ‘타당한 걱정’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여 국경과 장벽의 완화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재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정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²²⁾

- 1963년 7월 15일 에곤 바르가 독일 투칭에서 연설한 내용 중 -

동독 정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르의 연설은 동독에 대한 잠재적 인정(認定)과 은밀한 복속(hidden annexation)을 의미했다. 동독 전 외무장관 오토 빈처나흐(Otto Winzernach)는 이 개념을 은밀한 혁명으로 평가했다.²³⁾ 동독의 반응은 나누어 졌지만 바르는 여전히 자유화

21) Bernd Stoever: Egon Bahr, “Wandel durch Annaeherung,” Rede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Tutzinger Rede), 15. Juli 1963, in: Friedrich Ebert Stiftung, Online Publikation.

22) Bahr-Paper, URL: http://www.1000dokumente.de/index.html?c=dokument_de&dokument=0091_bah&object=facsimile&pimage=1&v=100&nav=&l=de.(accessed: June 4, 2017).

23) Bernd Stoever: Egon Bahr, “Wandel durch Annaeherung,” Rede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Tutzinger Rede), 15. Juli 1963, in: Friedrich Ebert Stiftung, Online Publikation.

정책의 가장 중요한 선구자 중 하나이다. 그 전의 접근방식과 비교했을 때 그의 개념은 혁명적이었다.

소위 「바르-문서(Bahr-Paper)」는 1970년 국무상 에곤 바르와 소련 외무상 안드레이 그로미코(Andrei Gromyko) 사이에 있었던 내부 회담의 결과를 문서화한 것으로서 상호 무력 사용의 포기를 제시하였다. 이들 사이의 회담이 소련 및 폴란드와 체결한 「동방조약(East Contracts)」의 기초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 대중신문인 빌트(BILD)지가 이 내부 문서를 공개하자 독일 대중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의 일부가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과 모순될 뿐 아니라 정부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바르는 그 후 자서전에서 독일과 미국 비밀 정보 활동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비공식적 외교 정책’과 그의 사회적, 정치적 네트워킹을 기록하는 것에 개입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1970년대 동방정책을 둘러싼 갈등 역시 통일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활동적인 바이에른 주 정치인 중 아데나워 내각에서 젊은 나이에 장관을 역임한 프란츠-요셉 슈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는 1973년 자신의 소속 정당인 바이에른 주 기독교사회연합당 내에서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주 정부가 모스크바 조약들에 반대하여 독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조약을 지지하는데 통일을 추구하는 독일 기본법(독일 헌법)의 소임(mandate)이 여전히 유효하며, 모스크바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 된 독일(Gesamtdeutschland)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무엇보다 동독 시민들은 자동적으로 서독 시민권도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동독 시민들은 원하는 경우에 - 동독에서 은퇴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한 때 허용됨 - 서독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서독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조치는 동독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가졌으나, 이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는 지속적인 독일 민족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대단히 중요했다. 이 문제는 서독에서 폭넓게 논의되었고 정당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동시에 동독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도되었다. 한국의 경우와는 달리 동독은 1972년 신헌법에서 동독의 ‘사회주의 조국’만 얘기했을 뿐이며 파시즘적이고 반동주의적인 서독에 대해서는 두 개의 다른 민족이라며 반대했다. 프란츠-요셉 슈트라우스(Franz-Josef Strauß)와 일부 정치인들은 변함없이 독일 단일민족을 확고히 지지함으로써 통일 정책에 중요한 기둥 역할을 했다.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을 일찌감치 포기했던 서독의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일부 정치인들의 단일민족에 대한 지지가 중요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장벽 붕괴 이후에도 이들은 독일통일을 다음과 같이 불렀다. 니더 작센(Niedersachsen) 州 총리이자 나중에 독일 연방총리를 역임한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독일 통일을 “반동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으며, 자를란(Saarland) 주총리이며 나중에 사민당 당수를 역임한 오스카 라폰텐(Oskar Lafontaine)은 “역사적 년센스”라고 하였다. 또한, 1982년 선거에서 사민당 후보였던 한스-요헨 포겔은 “환상”으로 불렸다. 녹색당은 심지어 선거 포스터에 “모두가 독일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 얘기한다.(Alle reden von Deutschland. Wir reden vom Wetter.)”라고 썼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프란츠-요셉 슈트라우스와 헬무트 콜 같은 서독 정치인이 통일에 대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것은 통일 정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다.²⁴⁾

24) Müller-Vogg, “Nur noch wenige glaubten an die deutsche Einheit,” in: Bayernkurier, 3.10.2015., im Internet: <https://www.bayernkurier.de/inland/6334-nur-noch-wenige-glaubten-an-die-deutsche-einheit/> (accessed: June 4, 2017).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 칼-하인츠 바움 (프랑크푸르트 룬트샤우 기자)

“(서독 정치인들이 통일에 대해 침묵하거나 혼란스러워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독에 있을 때 서독 정치인들의 통일에 대한 침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쁜 마음일 뿐이다”, “이제야 함께하게 되었다” 등의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서독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체감이 되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독일 통일과 정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다. 한국은 잘못을 지적할 독일의 선례가 있지만 독일은 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련의 석유 및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마르크화 환전으로 인한 부채의 증가, 기업들의 도산, 사기 범죄 등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독일은 참고할 선례가 없었다.”

3. 민권 운동과 정당의 영향

동독 정부에 대항한 활동들과 통일독일을 향한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 민권 단체 활동가들과 민중 운동도 상당히 중요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성직자라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교회 성도들 역시 국가보위부의 탄압에 대항하는 활동들, 예를 들어 소위 ‘평화를 위한 기도회(Friedensgebete)’를 개최했다. 이 기도회는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열렸는데 1982년부터는 크리스티안 뤼러(Christian Fuehrer) 목사가, 1986년부터는 본네베르거(Wonneberger) 목사가 1989년까지 이 기도 모임을 인도했다.

가. 민권운동(Civil Right Movement)

1980년대 동독 전역에서 민권 운동들과 민중 캠페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특히 베를린과 라이프치히는 민권 단체들의 활동 무대

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라이프치히 인권 전담반(1986-1989)’, ‘라이프치히 정의 전담반(1987-1989)’ 등이 포함된다. 라이프치히 인권 전담반은 슈테펜 그레쉬(Steffen Gresch)가 설립하여 대표를 맡았고, 라이프치히 정의 전담반은 신학교 학생이었던 요헨 래시히(Jochen Laeßig)가 창설했다. ‘평화를 위한 여성(1970년대 아일랜드 위기 기간에 설립)’은 베를린에서 유명한 시위 행진을 시작으로 동독과 서독에서 시위를 했고, 호네커에게 항의 서한 보내기 등의 활동으로 아주 유명했다. 이 단체는 1989년 가을 ‘전환(Die Wende)’의 시기에 인권 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단체들이 결합하여 중요한 연합이 생겨났고, 이 연합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 차후 의회 선거에 참여했다. 출발 민주주의(Demokratischer Aufbruch), 민주주의는 지금(Demokratie Jetzt), 인권 이니셔티브(Initiative fuer Menschenrechte), 노이에스 포룸(Neues Forum) 등이 그 연합이다. 이 연합들은 동독의 국가보위부의 침투 때문에 곤경을 겪기도 했다. 국가보위부의 비밀 요원이었던 볼프강 슈누어(Wolfgang Schnur)는 오랫동안 ‘출발 민주주의’ 당 서기장 직을 역임했는데 인민 의회 선거 직전에 정체가 탄로났다. 귄터 노케(Guenter Nooke)가 오랫동안 이끌었던 ‘출발 민주주의’는 동독 내 야당 정치 집단으로서 1989년 이후인 1990년 인민의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독일 연맹’에 참여했다.²⁵⁾

1990년 초 귄터 노케는 ‘출발 민주주의’를 떠나 ‘민주주의는 지금’에 합류했다. 이 단체는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비중있는 연합이 아니었으며 정치적 힘을 얻지 못했다. 사실 ‘민주주의는 지금’은 1986년 개신교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볼프강 울만과 콘라드 바이시히의

25) Goertemaker, Manfred: Volkskammerwahl 1990,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44~47.

‘중재에의 호소’ 이후인 198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모든 사람이 개혁을 위한 의지로 하나가 되며 기독교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도 하나가 되자’라는 취지하에 그들은 ‘동독의 민주적 재조직’과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실현을 촉구했다. 이 호소의 대상에는 서독 역시 포함되었다. 두 국가 모두 ‘통일을 위해 서로를 향하여 개혁’해 나갈 예정이었다. 오늘날 귄터 노케는 연방 경제개발협력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평화와 인권을 향한 이니셔티브’는 1980년 동독의 독자적인 반대 단체로서 처음 설립되었으며, 군축과 반체제 인사들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서베를린의 ‘대체 명단’과 서독의 ‘녹색당(Die Gruenen)’과 같은 서독 단체들과 연락을 취했다. ‘노이에스 포럼’은 민주적이고 자유 경제적인 요소들을 도입하여 사회주의 개념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인도주의적 사회주의 동독을 세우기 위해 1989년 배르벨 볼라이(Baerbel Bohley)와 옌스 라이히(Jens Reich)가 설립하였다.²⁶⁾

1990년 의회 선거에서 이 결성체들은 ‘동맹 90(BUENDNIS 90)’이라는 동독의 정당으로 통합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강력한 서독의 동맹 세력들과 잘 정비된 정당 조직이 없다는 공통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많은 운동들이 동일하게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조직적, 개념적 기초가 없었고 적절한 프로그램이나 정당 규율 없이 분산된 단체들로 활동했다.²⁷⁾

나. 정당

동독 의회 선거 이전인 1989년 가을 ‘전환’의 시기에 서독 정당들은

²⁶⁾ Ebd.

²⁷⁾ Goertemaker, Manfred: Volkskammerwahl 1990,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44~47.

동독 정치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시도했다. 진지한 선거 운동과 정치적 선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서독 정당들은 이 선거에서 동독-기독교민주당과 동독-기독교사회당을 위해 450만 마르크(약 230만 유로)를 지원하였으며, 동독-사민당과 동독-자민당에 150만 마르크(약 77만 유로)를 각각 지원했다.²⁸⁾

서독 기민당과 달리 서독 사민당이 많은 노력을 펼쳤다. 동독 사민당(서독 사민당에 해당하는 정당)은 1989년 10월 이브라힘 뵘메(Ibrahim Boehme)나 마르쿠스 맥켈(Markus Meckel) 목사와 같은 동독의 반체제 인사 43명이 세운 정당이다. 이 정당은 서독 사민당이 입증한 당 프로그램과 노동운동의 오랜 전통에 의지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 시절 가장 강력한 정당 중 하나가 되었으며 다른 정당들에게는 막강한 경쟁 대상이 되었다. 이 정당은 서독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많은 서독 사민당 정치인들은 이 정당의 당헌(黨憲)을 지지하기 위해 동독을 방문하기도 했다. 빌리 브란트 前총리는 명예의 장으로 임명되었다. 서독의 기민당에 상응하는 동독의 정당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정당은 예전에 사통당과 오랫동안 협력했으며 은행 어음 등을 통해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했다. 이 정당의 의장인 로타 드 매지에르(Lothar de Maiziere)에게 통일은 가까운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 초 동독 시민들 사이에서 통일을 향한 강한 열망이 확인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시대의 변화를 보고, 기민당을 지원해 독일 연맹을 세우고 의회 선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결과 신속하게 통일을 진행하고,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및 어떠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분명히 거부하자는 요구가 일어났다.²⁹⁾

28) Ebd.

29) Ebd.

4. 동독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서독의 제품들과 동서 체제경쟁 및 독일통일

독일 통일을 회고하며 통일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묻는다면 서독의 제품이 동독보다 전반적으로 우월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서독 소비재의 매력적인 측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민권 운동 세력과 반서독 좌익 세력을 포함한 동독 지식인들은 흔히 이 측면을 간과하곤 한다. 그 이유는 서독 소비재의 매력적인 측면들은 민권 운동 세력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정치적 자유라고 하는 ‘순수한’ 동기들의 퇴색으로, 反서독 좌파들에게는 지고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몰락하게 된 천박한 주요 이유로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동서독 물물교환은 대부분 동독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소포의 형태로 서독 소비재들을 보내면서 이루어졌는데, 커피 팩, 비누 및 세면용품부터 동독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도구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양이 동독에 전달됐다. 해마다 약 2,500만 개의 소포가 발송되었는데, 이는 인구 한 명당 소포 하나가 넘는 수치였으며 약 1천 톤 이상의 커피와 약 5백만 벌 이상의 의류가 포함되었다.³⁰⁾ 1961년 베를린 장벽 구축 직후에는 동독 정부가 동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포들을 저지하려고 했지만, 197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는 커피 수입량을 계산하는 등 나중에는 이러한 소포에 들어있는 소비재의 양을 공식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서독 제품들이 동독을 불안정하게 하였는가? 의류의 경우, 특히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우월한 품질과 패션은 (청바지의 예처럼) 서독의 물질적 풍요와 우월성을, 그리고 동독은 ‘가난한 친척’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어 서독 체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동독은

³⁰⁾ See Härtel Christian, Petra Kabus (eds.), Das Westpaket: Geschenksendung, keine Handelsware, Berlin: Links, 2000.

이러한 제품들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이러한 물건들을 공급하려고 시도했다. 소위 인터숍(intershop)을 통한 공급을 하였는데, 1962년부터 이곳에서 쉽게 환전 가능한 화폐로 서독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다. 1989년까지 약 470여 개 인터숍을 통해 동독 시민들은 서독 소비재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소규모 소비재와 달리 세탁기처럼 장기간 지속되는 소비재의 경우, 가상 백화점인 제넥스 스토어에서 서독 친척들이 제공하는 서독 화폐를 통해 구입할 수 있었다.

많은 서독 방문자들이 자가용을 타고 동독 친척들을 방문하였는데 1980년대에는 매년 방문자 수가 수백만 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의복과 습관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영향은 정치적 전략이나 선언은 아니었지만, 전략적으로 동독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에 들어가는 남한 제품들이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데도 불구하고, 개성에서 ‘초코파이’나 ‘쿠쿠 밥솔’은 우월한 소비재로 여겨지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일의 역사와 통일에 미친 서독의 영향은 전환의 시기에 정치적으로 중요했던 시민 운동과 더불어 이러한 물질적 측면을 살펴보아야 한다.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 라이너 에펠만 (동독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

“동독 정부 또는 독재가 붕괴된 이후에 동독에는 두 가지 형태의 정당이 존재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정당과 새롭게 창당된 신생 정당들이었다. 기존의 정당들은 선거 경험도 있었고 사무실, 사무직원 등 인프라와 정치적 경험, 선거 캠페인 경험 등을 갖고 있었다. 신생 정당들은 의지는 강하나 영향력과 경험이 없는 아마추어 정치인들이었다. 서독 정당들이 바로 이런 신생 정당들에게 먼저 접근을 하였으며 이는

빌리 브란트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른 서독 정당들도 어쩔 수 없이 동독 정당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

- 로타 드 메이지어 (전 동독 수상)

“장벽이 세워진 것을 경험하고, 분단의 고통을 경험한 세대는 통일을 열망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동독의 젊은이들은 파리나 런던, 혹은 브뤼셀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하고 서독의 젊은이는 부다페스트 같은 곳들을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렇듯 젊은 세대의 동서독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각 정치적 정당이나 그룹 통일에 대한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해 말해 보겠다. 서독의 경우, 통일을 원하지 않았던 당시 좌파의 녹색당은 새로이 탄생하는 동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새로운 동독은 작은 국가로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재하고 있으면서도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였는데, 이러한 새로운 동독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은 없었다.”

“통일 당시에는 희망이 넘쳐나서 오히려 ‘거품희망’이 되어버리는 시기였다. 당시 나는 동독의 기민당 수석이었다고, 기민당에서는 통일을 독일 헌법 23조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헌법 23조는 통일에 관한 조항인데, 녹색당은, ‘이 번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전화 걸면 나오는 방송 메시지를 패러디한 것)’ 아래에 ‘23조’라고 명시한 슬로건을 내걸었다(이 헌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

“(베를린 장벽 붕괴 후 동독에서 민주주의적 선거를 기획한) 원탁회의에서 5% 하한선을 정해서 사통당과 PDS 라는 정당이 의석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만약에 이러한 5% 하한선을 통과시켰다면 녹색당도 낮은 지지율로 인해 동독 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PDS를 겨냥한 하한선 지정은 16%라는 높은 지지율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선거 전 전체 독일을 두 선거구로 나누어 지지율조사를 실시했다. 동독에서는 그 5%라는 봉쇄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에서는 녹색당이 동독 의회에서 의석을 얻은 반면, 서독에는 하한선이 있었으므로 녹색당이 진출하지 못했다. 이는 (녹색당은 통일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사람들이 통일을 원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민당은 통일을 지지했고, 사민당은 정당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렸다. 사민당은 기민당과는 달리 통일 전에 동독 정당과 오랫동안 접촉을 해왔던 정당이었다. 특히 종교분야에 있어서 사민당이 많이 개입했는데 예를 들면, 서독의 사민당 정치인은 동독의 모든 교회에서 한 번씩은 발언을 했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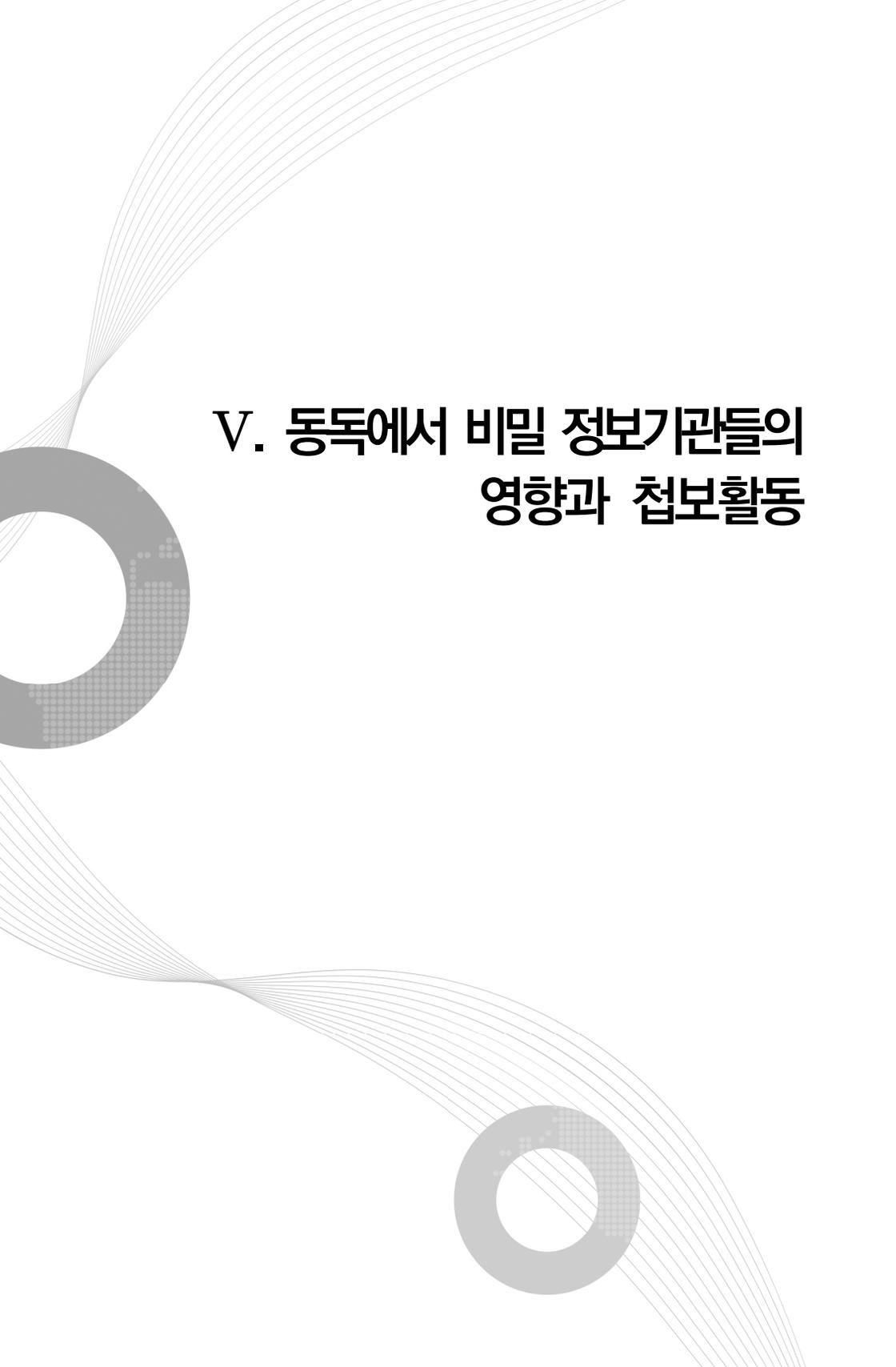
“1987년 사민당과 사통당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양 독일 국가 간의 공존을 서로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인정한다는 것이었다. 문구를 보면 ‘체제 간의 투쟁’과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기본 문서를 서명한 사민당 당원들은 통일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통일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연방 총리에 입후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민당 내에서 나이든 세대는 통일을 지지하는 경우(빌리 브란트 같은)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의 통일 입장이 불분명했다. 정당 내에서 통일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는데, 이것이 총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1990년대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3월 18일 선거에서 22%의 지지율 밖에 얻지 못했다. 설문조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동독에서는 전문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기관이 없었고, 설문 방법이 전화였는데 그 당시 동독에서 전화기를 가지고 있던 집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동독에서 유선전화기 자체가 엄청난 사치였다. 동독의 전화는 2차 세계대전 이

전의 것으로, 하나의 선을 두 사용자가 같이 사용해야 했고, 경우에 따라 한 사용자는 오후 5시가 지나서야 통화하는 것이 가능했다.”

“사민당과는 달리 서독의 기민당은 분단 이전에는 동독에 관심도, 접촉도 없었다. 기민당의 주요 가이드라인은 반공주의였는데, 기민당은 철저한 반공주의 원칙을 지켰고, 같은 이름의 동독 정당인 동독 기민당과도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 기민당은 브란트의 동방정책, 그리고 폴란드와 모스크바와의 조약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았다. 기민당은 원칙적으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부에서는 그 통일을 포기한 지도층도 있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최초 민주주의 선거가 앞당겨졌는데, 서독의 정부가 급하게 손잡을 정당을 찾기 시작했다. 서독의 기민당이 접촉을 처음 했던 것이 DSU(작센 튜링, 바이에른 CSU로부터 유래)이었고, 나는 콜 수상과 비밀리에 몰래 만난 바 있다. 콜 수상은 나에게 동독 독재하의 기민당의 과거 때문에 우려된다면서 우리가 손을 잡으려면 동독 기민당의 과거를 처리해야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래서 나는 동독 기민당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전 동독 선거구마다 당 사무실과 다섯 개의 신문을 가지고 있고, 사무직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사통당 외에 동독 전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답했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background with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top and bottom. Two large, stylized circular elements are present: one on the left side, partially cut off, and one at the bottom center. Both circles are filled with a grid of small dots, with the density of the dots increasing towards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page.

V. 동독에서 비밀 정보기관들의 영향과 첩보활동

가수 겸 작가인 볼프 비어만(Wolf Biermann)의 강제 추방으로 야기된 1976년과 1977년의 대혼란 이후에, 로베르트 하베만(Robert Havemann)처럼 가택 연금에 처한 여러 반체제 인사들 혹은 『대안(The Alternative)』의 저자인 루돌프 바로(Rudolf Bahro)처럼 구속수감된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 이후에 동독은 다시 잠잠해졌다. 하지만 이듬해에 동독 내 반대파는 반체제 단체 및 비밀 정보기관들 사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독일 분단 이후 약 1만 명의 동독 시민이 서독 연방정보부를 위해 일했다. 동독 시민들이 이러한 위협을 감수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연방정보부 反소련군 첩보활동-동독에서 서독 군부의 첩보활동』의 저자인 아르민 바그너(Armin Wagner)에 따르면, 처음에는 반전체주의 사고, 반공주의, 혹은 심지어 1940년대 초의 나치에 대한 태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밖에 재정적인 이유 역시 구속될 위협을 감수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³¹⁾

1. 연방정보부와 국가보위부

독일 연방정보부 제1국 국장을 역임한 리차드 마이어(Richard Meier) 박사가 언급했듯이, 연방정보부(Bundesnachrichtendienst: BND)는 역사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불행하게도, 연방정보부가 주로 수집했던 사실 자료와 수치 자료에 접근하기란 용이하지가 않다. 간신히 그런 자료들에 접근했다 해도 거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그렇게 공개된 경우에도 그것은 우연의 산물이다. 연방정보부는 독일 연방기록보존소(Bundesarchiv)의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이 문서들은

31) Uhl, Matthias/ Wagner, Armin: Westdeutsche Militaerspionage in der DDR, in: Deutschlandfunk online, 2007.

연방정보부가 어떻게 서독 정부에 보고했고 그 요원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군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들은 동독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 인적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다. 이 기록들 대부분은 여전히 기밀로 취급된다. 다행히도 1991년 슈타지 기록물에 대한 독일 의회법이 통과된 덕분에 슈타지(Stasi) 방첩 부서의 문서들은 역사적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접근이 가능하다. 슈타지 주무 부서인 제9국(Hauptabteilung IX)은 특히 서독 정보기관이 모집하고 활용했던 스파이들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이다. 이 부서는 정치범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소송 준비에 주력했고 동독의 형법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³²⁾

서독 연방정보부의 첩보활동이 가장 성공적이었던 시기는 동독에 대규모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1950년에서 1960년 사이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의 구축 이후에 방첩 활동의 중요성은 감소했다. 이 시기에 서독 스파이들의 통신 내용이 검열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슈타지는 많은 서독 스파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 서독 비밀 정보기관들의 네트워크는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양측 모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슈타지가 간첩들을 검거했지만, 도주의 위험 때문에 절차를 바꾸었고 스파이들을 자신들의 정보 활동을 위한 이중 정보요원으로 전향시켰다.³³⁾ 물론, 스파이와 변절자 숫자는 서독보다 동독이 더 많았다. 그 이유는 동독의 슈타지가 인력 중심의 전략에 주력한 반면 서독 연방정보부는 최첨단 기술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동독의 모든 연방정보부 정보원의 약 90%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국가보위부의 이중 첩자로 활약했다.³⁴⁾

32) Paul Madrell, "The Economic Dimension of Cold War Intelligence-Gathering: The West's Spies in the GDR's Economy," *Th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5, issue 3 (2013), pp. 76~107.

33) *Ibid.* pp. 76~107.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국가보위부 중위이면서 연방정보부 이중 첩자였던 베르너 슈틸러(Werner Stiller)였다. 슈틸러는 오늘날 독일 분단 기간에 가장 중요한 망명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다. 1979년에 동독의 억압 정책에 환멸을 느낀 슈틸러는 연방정보부를 접촉하고 2만장이 넘는 슈타지 문서를 도피 중에 서독에 넘겼다. 슈틸러는 그가 가진 정보를 통해 ‘얼굴없는 사나이’라고 알려진 동독 스파이 두목인 마르쿠스 볼프(Markus Wolf)를 연방정보부에 알려 주었다. 국가보안부가 점차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경고 덕분에 많은 요원들이 소환되었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³⁵⁾

냉전 시기 마지막 연방정보부 수장은 한스 게오르그 비크(Hans-Georg Wieck)였다. 비크에 따르면 초기 비밀 정보 활동들은 주로 소련군에 관한 정보수집에 주력했으며 동독 시민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의견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³⁶⁾ 만약 동독에 관해 신경을 쓴 게 있다면 폭력적인 시위의 잠재적 가능성 정도였다. 동독 시민들에 대한 분위기는 부분적으로만 감지되었다. 비크의 지시 하에서 비밀 정보기관들의 활동들은 특히 국가보위부와 관련하여 증가하였다. 1986년에 연방정보부는 국가보위부 고위급 간부들을 연방정보부를 위한 이중 첩자로 전향하려고 했으며 동독에서 정보요원의 수를 늘리려고 했다. 비크는 처음으로 동독의 망명자들과 귀환자들에 대한 심문을 임시 캠프에서

34) *Ibid.*

35) Harrison Smith, “Werner Stiller, a Stasi officer, was one of the most notable defectors of the Cold War,” *Washington Post*, April 4, 2017.

36) Hans-Georg Wieck. BND CONTRA SOWJETARMEE Westdeutsche Militärspionage contra Sowjetunion Buchpublikation von Armin Wagner, Hamburg, und Dr. Matthias Uhl, Moskau Ch. Links-Verlag, Berlin, 296 Seiten, 2007 Bad 14 der vom Militärgeschichtlichen Forschungsamt herausgegebenen „Militärgeschichte der DDR“ Präsentation und Rezension, p. 9. In the Internet: <http://hans-georg-wieck.com/data/BND%20contra%20Sowjetarmee.pdf> (accessed: June 30, 2017).

실시하도록 했다. 비크는 6개월마다 상세한 설문지를 통해 약 600명을 대상으로 동독의 망명자들과 귀환자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동독 국가에 속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설문 결과는 약 72~78%의 응답자가 통일을 원하며 동독의 시민권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독의 민주적 구조는 거의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³⁷⁾ 처음에 서독 정부는 그 결과를 발표하기를 꺼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결과는 상식이 되었고 받아들여졌다. 이에 상응하여, 동독에서는 체제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가능성과 인간성 회복, 나아가 민족 문제까지 아우르는 평화적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연방정보부가 실시한 동독 내 인권 실태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정치범 숫자와 재배치 요청 건수가 드러났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요청 중 12만 건이 1988년에서 1989년 사이 국가보위부에 등록되었다.³⁸⁾

연방정보부 역시 동독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비크에 따르면 동독 경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세한 정보가 있었다고 한다. 『국가현황 보고서(Bericht über die Lage der Nation)』를 작성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가 출판한 통계 자료를 참고하기로 결정했다. 동독 정부는 동독이 세계 10대 산업 대국이라고 그릇되게 주장했고 그로 인해 동독 상황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도록 했다. 비크는 서독 정부가 1963년 이후 동독 경제 실적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무시했는데 그 이유는 동독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점진적인 개선을 원했던 정부의 정책에 상반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³⁹⁾

37) Wentker, Hermann: Die DDR in den Augen des BND (1985-1990):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p. 328.

38) Wentker, Hermann: Die DDR in den Augen des BND (1985-1990):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pp. 323~358.

39) Paul Madrell, "The Economic Dimension of Cold War Intelligence-

국가 현황 보고서는 언제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사민당-자민당 ('사회주의-자유주의') 연정 시기에, 이 보고서는 폐기되었으나 1983년 이후 헬무트 콜 총리가 그 보고서를 재도입했다. 이 보고서는 상기 언급했듯이 통일 이전 시기에 연방 정부의 서독 정치인들이 그들의 발언들을 통해 독일 민족은 분리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전파했고 '사회주의 동독 국가'라는 허구가 공개적으로 깨졌던 시절에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이러한 보고서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비밀 정보기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들이 입수한 중요한 정보는 동독의 상황을 개괄하고 통일을 위한 서독 정책 계획들(Initiatives)의 바탕이 되었다. 이 보고서 역시 서독뿐 아니라 언론 매체를 통해 동독에서도 읽혀졌다.⁴⁰⁾

2. 사민당 동독 사무소

분단 초기에는 정당 역시 동독에서 첩보활동 노력을 더욱 강화했다. 동독에 사무소를 둔 기민당과 자민당뿐 아니라, 서독 사민당의 동독 사무소는 동독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었다.

서독 사민당의 쿠르트 슈마허(Kurt Schumacher)는 서독에서 자유주의 사회 발전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수록 러시아 점령군을 향한 동독 시민들의 압력이 더 커졌다고 확신했다. 그 결과, 그는 합병이 곧 임박할 것으로 예견했다. 동독 사무소의 실제 기능은 당 지도부에 의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 사민당 동독 사무소의 설립은 다른 목적을 추구했다. 이 사무소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Gathering: The West's Spies in the GDR's Economy," p. 87.

40) For a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reports under Helmut Kohl, see Manuel Fröhlich, *Sprache als Instrument Politischer Führung. Helmut Kohls Berichte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München: Schriftenreihe der Forschungsgruppe Deutschland, 1997.

확신을 널리 알림으로써 동독의 반대파와 반체제 인사들 사이에 미래 통일에 대한 기초를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동독 사무소는 ‘주거지(Zone)’의 난민들을 돌보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했다. 동독 사무소의 인식은 동독과 서독에서 상반되었다. 서독 연방정보부는 이 사무소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사통당은 이 사무소를 제국주의 첩자 사무소로 간주했다. 대부분의 정보원들이 파기되었거나 기밀 처리되어 있어 동독 사민당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볼프강 부쉬포르트(Wolfgang Buschfort) 박사의 논문 『사민당 동독 사무소 1946-1958』은 당 사무소의 주요 목표, 흔히 사용한 수단들과 영향력에 대한 유용한 연구이다.

공모 공작과 관련하여 동독 사무소는 서독 및 서방 비밀 정보기관(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처럼)과 긴밀히 협력했다. 이 내부 경찰의 틀 내에서 동독 사무소는 정치적 극단주의 단체들에 침투했으며 공공기관들로부터 독려를 받았다. 이 사무소는 통일 이후에 ‘더 나은 누렘베르크(Nuremberg)’⁴¹⁾를 위해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동독 시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울브리히트(Ulbricht) 정권의 불법 선동 투쟁에 운반책 및 연락책들이 동원되었다. 동독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민당 동독 사무소의 노력은 아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 이뤄졌다. 장벽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국경은 여전히 개방된 상태였기 때문에 운반책들이 국경을 넘어 선전 자료들을 운반하는 것이 용이했다. 경찰요원들은 정치적 분위기를 관측했고 여론을 분석했다.

1950년대 초 발터 울브리히트 정권은 수백 명의 연락책들을 체포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25년 감옥형 혹은 노동자 수용소 수감형을 선고받았다. 전 연락책이었던 하인츠 리히틀러(Heinz Richtler)의 추산에 따르면 첩보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때문에 약 800명이 체포되

41) 스탈린 지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의미.

었다고 한다.⁴²⁾ 동독 사무소는 자신들을 은폐했어야 했고 비밀 첩보 활동을 위해 조직 해체와 선전 자료 등 새로운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비밀 잉크, 미니 카메라 등을 사용하기도 했고 ‘주인이 없는 우편함’을 설치하였으며, “힘내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Bleibt stark, wir helfen!)”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들 가득 실은 자체 폭발용 풍선들을 국경 너머로 날리기도 했다.

동독 사무소는 사통당 위원회의 회기 보고서와 같은 많은 비밀 정보와 경찰 구조 혹은 붉은 군대의 위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동독에서 빼내어 연방정보부와 기타 서독 비밀 정보기관 등에 넘겨 주었다. 베를린 장벽 구축으로 인해 정보 교환이 끊기자 사민당 동독 사무소는 1966년 문을 닫았다.⁴³⁾

3. 동독의 슈피겔 사건

진보적 입장으로 잘 알려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은 1978년 초 소위 ‘독일 민주 공산주의자 연합(Bund Demokratischer Kommunisten Deutschlands)’을 게재하고, 동독 정부와 동독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동독의 정치 제도가 조직적 반대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 내부에는 어떤 형태의 조직적 반대도 없었다. 이 선언문(manifest)은 다원주의적이며 민주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를 분명하게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거의 잊혀 가는 듯했던 통일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이 선언문은 1972년 양국 사이의 「기본 조약」 이후 통일에 대한 목표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42) Der Spiegel (ed.) “Bleibt stark, wir helfen!” - Neue Forschungsergebnisse ueber SPD-Spionageaktivitäten im Kalten Krieg, 25/1990, p. 74.

43) DER SPIEGEL (ed.): „Bleibt stark, wir helfen!“ - Neue Forschungsergebnisse ueber SPD-Spionageaktivitaeten im Kalten Krieg, edition 25/1990, pp. 73~77.

에리히 호네커를 비난함으로써 그의 정책들을 공격했다. 이 선언문이 동서독 간 관계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통당은 그저 '새해 농담'이나 '의심스러운 책략'쯤으로 치부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축소하고 신뢰도를 떨어뜨리려고 시도했다.⁴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심각한 조치를 취했다. 슈피겔의 동독 사무소를 폐쇄했으며 1985년까지 잡지사의 모든 직원들에게 동독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통당 역시 이 선언문의 편집자들을 찾아내려고 했다. 1978년 1월 9일 시작된 편집자들에 대한 수색 결과 헤르만 본 베르크(Hermann von Berg) 교수가 주범으로 발각되었다. 그 당시 동서 관계 전문가였던 본 베르크 교수는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 재직 중이었고 서독 언론인들을 담당하던 동독 장관위원회(Minister Council)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다. 본 베르크 교수는 동독의 주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빌리 슈토프(Willi Stoph)의 오랜 지인이자 비밀 정보 운반책으로 일했다. 이런 역할을 통해 본 베르크 교수는 서독 언론인들과 오랜 세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베르크 교수에 의하면 이러한 전문인들과의 접촉, 특히 1977년부터 울리히 슈바츠(Ulrich Schwarz) 슈피겔 동독 지부장과의 접촉은 우정으로 변모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본 베르크 교수는 동독의 고위급 극비 정치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⁴⁵⁾

1977년 이후 호네커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증가했다. 비판가들 중에는 루돌프 바로(Rudolph Bahro), 로버트 하베만(Robert Havemann), 볼프강 하리히(Wolfgang Harich) 등이 포함되었는데, 이들의 모임은 처음에는 조직적인 단체의 모임이 아니라 느슨하고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호네커가 민족 통일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으로

44) Hoferichter&Jacobs Film/ und Fernsehproduktionsgesellschaft (ed.): Hecker, S./ Hoferichter, M.: Die SPIEGEL-Affaere Ost 1978, Leipzig 2008.

45) Ebd.

간주되었다. 그래서 본 베르크 교수는 이러한 공동 의견을 대중에게 호소하기로 결정했다. 30쪽에 달하는 이 선언문은 ‘전쟁과 평화’, ‘공산주의 개혁과 소련 정통성’, ‘동독의 내부 상황’ 등의 주제를 다루었고 다원주의 정당, 독립적인 의회 및 대법원,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요구했다. 과학, 예술, 문학 분야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검열이나 국가의 통제도 거부했다. 이 선언문이 행정부의 정책들뿐 아니라 공산주의 종교 이념 그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국가 정당성의 근본을 뒤흔드는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⁴⁶⁾

이 선언문이 동서독 간 데탕트 정책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서독 정부 내에서 사민당은 저자세를 견지했다. 에리히 호네커가 독일 접근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호네커가 행동의 자유를 잃을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슈피겔은 1978년 두 번째 판에서 다음과 같이 쓰면서 그 선언문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아무것도 사실일 수가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 에곤 프랑케(Egon Franke) 독일연방공화국 내독관계성 장관은 동독 내 조직화된 형태의 반대파들을 믿지 않는다.⁴⁷⁾

한편, 기민당의 헬무트 콜은 이 잡지를 계몽적이라고 치하했다. 이 모든 사태로 인해 동독 행정부는 거의 1년 동안이나 분주했고 크렘린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큰 곤욕을 치렀다. 본 베르크 교수 자신도 가택 연금을 당했고 군사 재판에서 2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언론인들도 동독의 절차들에 반대하는 항의

⁴⁶⁾ DER SPIEGEL, Nr. 2/1978: Einheitsfront gegen die Stoerenfriede, pp. 1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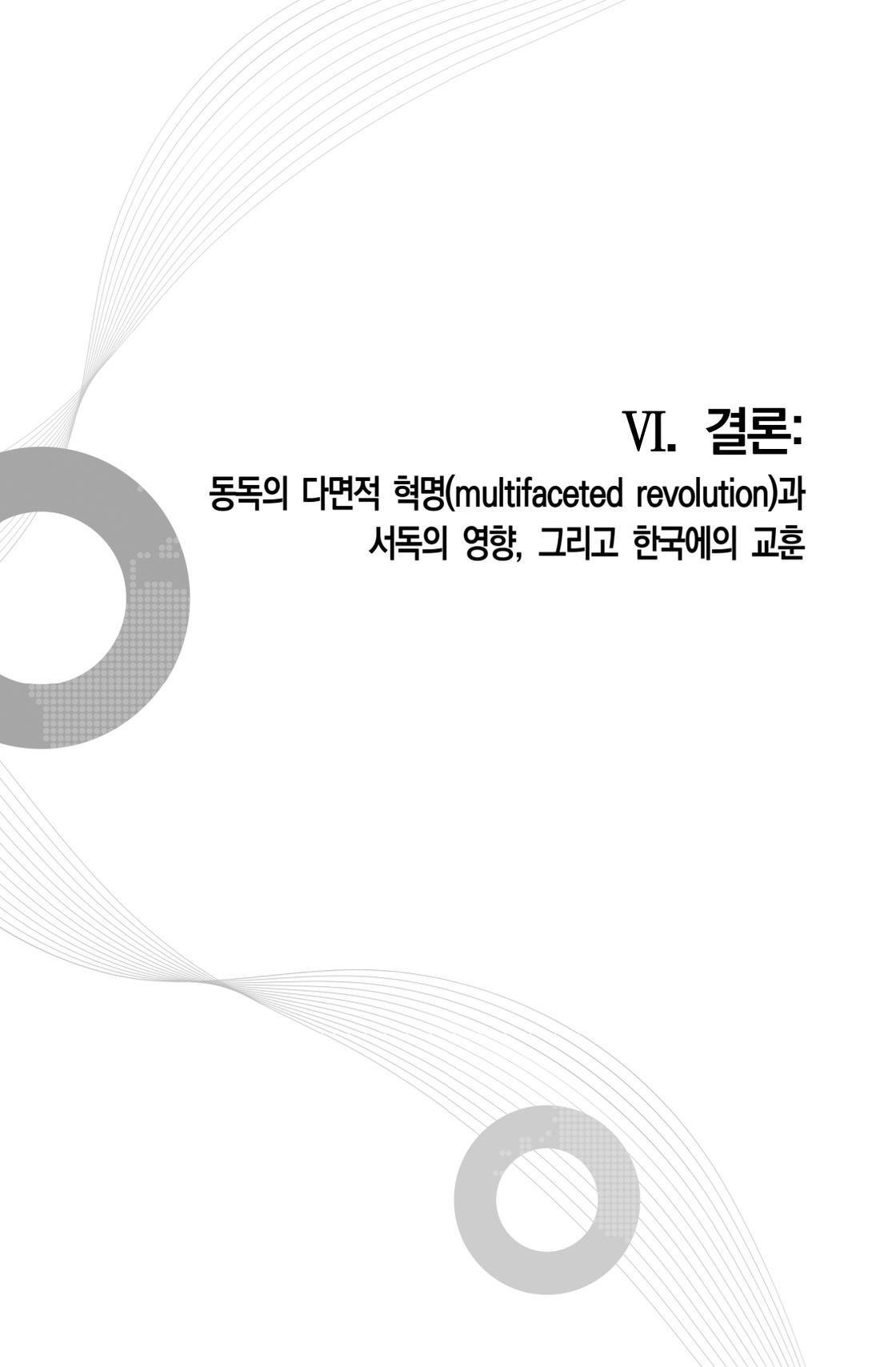
⁴⁷⁾ *Ibid.* p. 18.

서한을 출판하자 동독 정부는 본 베르크 교수를 석방하기에 이른다.⁴⁸⁾

이 사건은 에리히 호네커가 취한 서독 정책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호네커는 서독의 친구이자 데탕트 정책의 보증인으로서 서독을 향하여 더욱 개방적인 관계로 이끌었다. 동독의 부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 무역 및 승객 수송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서독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했기에 가능했다. 동독이 서독으로부터 (제품과 정보로 인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동독 내에서 불만은 고조되었고, 사통당은 곧 당 내부와 사회 내에서 더 점증하고 대담해져가는 반대파의 비판에 직면했다. 다른 한편, 점차 증대하는 서독의 영향은 모스크바에 대한 더 강한 압력으로 작용해서 시민들 사이에 더 큰 불만을 초래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반항뿐 아니라 저항을 준비하고 있던 당 및 국가 관료들 사이에서도 반란을 초래했다.⁴⁹⁾

48) Hoferichter&Jacobs Film/ und Fernsehproduktionsgesellschaft (ed.): Hecker, S./ Hoferichter, M.: Die SPIEGEL-Affaere Ost 1978, Leipzig 2008.

49) DER SPIEGEL, Nr. 1/1978: DDR-Widerstand: Sehnsucht nach Demokratie, pp. 19~21; DER SPIEGEL, Nr. 2/1978: Einheitsfront gegen die Stoerenfriede, pp. 17~26.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from the top left towards the bottom right. Two large, grey, circular shapes are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ne near the top and one near the bottom. The right side of each circle is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VI. 결론:

동독의 다면적 혁명(multifaceted revolution)과
서독의 영향, 그리고 한국에의 교훈

1989년 동독의 평화 혁명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도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붉은 군대 병력을 사용하지 않고, 동유럽 위성 국가들이 독자적인 노선을 견도록 허용한 결정. 1980년대 소련의 지식인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독일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
- 1980년대 후반 폴란드와 헝가리로부터 받은 자극, 특히 ‘범유럽’ 조찬에서 헝가리가 국경을 개방하기로 한 결정과 그 결정에 뒤이은 동독인들의 서독으로 향한 대규모 탈출.
- 두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공권력에 용감히 저항하여 자유를 요구했던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동독의 마을들.
- 서독과의 치열한 체제 경쟁을 비롯한 정치적·경제적 압력, 경화(hard currency)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자금원의 물색이 불가피했던 상황.
- 프랑스와 영국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취한 확고한 지지 입장.

동시에 서독의 상품과 사상, 언론, 정치인들과 비밀 정보기관을 비롯한 인적 교류를 통해 서독은 통일에 지속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대개 마스터 플랜을 따른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라기보다는 서독의 우월한 경제와 정치제도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으며 분단을 불필요하게 없애기보다는 적어도 덜 심각하게 만들고자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였다.

서독의 다소 수동적인 역할은 일단 동독이 통일을 위한 의지와 압도적인 대중의 지지를 보이자 방향을 완전히 선회했다. 헬무트 콜의 10개 조항을 담은 프로그램을 필두로, 서독 정부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훨씬 규모가 작고 경험도 부족하며 약한 동독 정부와 통일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협상했다. 따라서 서독이 때로는 월등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반면 그 이전에는 서독 정부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었다.

서독은 때로는 뒤에서 동독의 실제 변화를 관망하거나 때로는 주도적인 위치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자주 오해를 받았다. 서독의 역할은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다양한 세력들 가운데 대단히 복잡한 상호작용의 한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 정부의 상대적인 수동성은 한반도 통일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다. 항상 정부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 정부의 수동성은 그것이 서독 정부가 의도했던 바이든 아니든 간에,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독 언론의 보도는 동독의 다면적 혁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서독 정부가 동독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언론 정책을 통해 서독 언론의 보도 내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동독 주민들이 시청한 서독 TV는 서독 주민들이 시청한 내용과 같은 것이었다. 서독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서독 언론 보도에 반영되었다면, 이는 즉각적으로 서독 언론의 공신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 언론 보도를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이해했을 것이며, 이는 동독의 다면적 혁명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다. 즉, 서독 정부의 수동적이고 다소 방관적인 태도는 서독에서 넘어가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독의 다면적 혁명이 시작되기 전에, 서독 정부는 언론, 상품, 민간 및 정부 차원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 외에 그 교류의 내용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서독 정부의 수동성은 결과적으로 여러 차원의 교류를 통해 서독 체제의 우월성을 동독 주민들에게 인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서독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인내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그것이 남북한의 합의에 따른 평화적 통일이든, 혹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이든 간에,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변화의지가 없는 통일과 통합은 상상하기 힘들다. 북한 전체주의 정권의 프로파간다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체제 우월성 홍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인 교훈은 항상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내심과 비전을 갖고 교류의 폭을 넓히는 것에는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나, 그 교류의 내용과 형식에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 관계자 관련 인터뷰〉

- 마리안 버틀러 (동독 교회활동가)

“독일이 통일의 성공 사례로 언급되지만 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독재 치하에 생활했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생각이다. 독재를 극복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결국은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가 몇 가지로 축약된다는 것이었다. 1) 독재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 2)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문제; 3)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적인 절차와 구조가 확립될 수 있는지; 4) 어떻게 시민 사회를 형성

할 수 있는지; 5) 지난 독재 치하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의 문제; 6) 왜곡된 사회, 왜곡된 윤리를 다시 정상적인 시민 사회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독일 통일의 경험으로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면, 동독 주민들의 독재하의 억압이나 고통이 통일 이후에 공개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에서 거론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이다. 또한, 통일 절차에 동독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지배자로 대우받는지의 문제도 중요하다. 서독에서는 정치, 경제적으로 동독이 필요 없었다. 이 점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없어도 남한은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독재 지배하에 있던 영토가 단순히 점령지, 지배지로 전락하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 라이너 에펠만(동독의 마지막 국방부장관)

“(동독은) 통일 자체를 요구했다기보다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었다. 통일을 원하는 것은 서독이었고, 동독이 원하는 건 ‘변화’였다. 작센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처음 내건 슬로건은 ‘우리가 그 인민이다’였는데 이는 후에 ‘우리가 하나의 인민이다’로 변화하였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통일을 찬성했는데, 이것은 그때까지 서독에서 보여준 신뢰, 파트너십, 협력 관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이라고 해서 꼭 나치의 독일인 것은 아니며, 독일인들이 믿을만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준 것이다. 또한 미국이 독일 통일을 지지할 의향이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을 매력적인 사회로 만들고, 주변국이 한국의 통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우호관계를 많이 형성하는 것이 좋다. 그 중에서 힘

있는 국가가 통일을 지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북한 주민들이 알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시간이 걸려도 언젠가는 통일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한국을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측에서는 한국이 연대감을 가져야 할 대상은 북한의 엘리트가 아닌 북한의 주민들이어야 한다.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본인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라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 데틀래프 쿤 (전독문제연구소장)

“분단이 지속될수록 동서독 간의 결속, 공동체감이 상실되는 위험이 있었는데 이는 동독보다 서독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80년대 이후에는 서독 학생들이 동독으로 수학여행 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동독으로 여행가는 게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음식과 숙소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교사들의 취향이나 태도에 좌우되기도 했지만, 학생들에게 동독이 가 볼 만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이 드신 분들 중 특히 동독 지역에 살았거나 억압받았던 사람들은 동독으로 여행가서 자신이 쓰는 돈이 사회주의 동독에 재정적 지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서독인들이 동독을 방문하면 생활 습관 또는 양식에 대해 양독 주민들이 얘기하게 될 것이고, 동독 주민들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독의 안보기관에서는 싫어했다. 슈타지가 수학여행을 감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통일 이후 슈타지 문서를 살펴보니, 통일 전후에 수학여행자 수가 많아져서 동독에서 감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다. 감시인원은 1,200명 정도였는데 이것으로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서독 학생들이 동독으로

가서 느낀 것은 상황이 다르지만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었다. 여행을 가서도 숙소에만 있을 필요 없다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여, 서독 학생들이 동독의 클럽도 가보게 하고 그곳에서 동독의 학생들과 만나게 하고, 대화도 나누게 하였다.

전독일연구소가 서베를린에도 지사가 있고 본에도 있었는데, 통일 이후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대부분 상속 문제나 법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였고, 동독법 전문가들과 함께 컨설팅을 해준 바 있다. 교육박람회를 이용해서 찾아온 동독의 교사들은 분단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제까지 가르쳐왔던 서독에 관한 것들을 다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느냐는 자문을 구하러 많이 찾아왔다. 갑자기 세계관이 붕괴되는 상황에 처한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못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라고 조언을 주는 정도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Eibl, Franz. Politik der Bewegung: Gerhard Schroeder als Außenminister 1961-1966. München: Oldenbourg, 2001.
- Fricke, Karl Wilhelm. Widerstand und Opposition in den vierziger und fuenfziger Jahren. in: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DR-Forschung. Eppelmann, Rainer(Hrsg.). München: Schöningh, 2003.
- Fröhlich, Manuel. Sprache als Instrument politischer Führung. Helmut Kohls Berichte zur Lage der Nation im geteilten Deutschland. München: Schriftenreihe der Forschungsgruppe Deutschland, 1997.
- Glaab, Manuela.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Werner Weidenfeld/ Karl-Rudolf Korte (e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 Härtel, Christian - Petra Kabus (eds.). Das Westpaket: Geschenksendung, keine Handelsware. Berlin: Links, 2000.
- Heinen, Guido. Wir haben uns tastend vorwaerts bewegt. in: Haller, Michael/ Lutz, Muekke: Wie die Medien zur Freiheit kamen - Zum Wandel der ostdeutschen Medienlandschaft seit dem Untergang der DDR. Köln: Halem, 2010.
- Neubert, Ehrhart. Die Opposition in den achtziger Jahren. in: Bilanz und Perspektiven der DDR-Forschung. Eppelmann, Rainer (Hrsg.). München: Schöningh, 2003.
- Voskamp, Sabine. Katholische Kirche und Vertriebene in Westdeutschland: Integration, Identitaet und ostpolitischer Diskurs 1945-1972. Stuttgart: Kohlhammer, 2007.

2. 논문

- Braumann, Christa. Fernsehforschung zwischen Parteilichkeit und Objektivitaet. Zur Zuschauerforschung in der ehemaligen DDR. In: Rundfunk und Fernsehen, 42. Jg., 1994, S. 524~541.
- Bruecher, Lars. Das Westfernsehen und der revolutionaere Umbruch in der DDR im Herbst 1989. Magisterarbeit im Fach Geschichtswissenschaft an der Universität Bielefeld, 2000.
- Goertemaker, Manfred. Beginn der deutschen Einigung,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34~37.
- _____. Volkskammerwahl 1990, in: Der Weg zur Einheit,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Heft 250, Bonn 2015, S. 44~47.
- Madrell, Paul. "The Economic Dimension of Cold War Intelligence-Gathering: The West's Spies in the GDR's Economy." *The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5, issue 3. 2013.
- Meyen, Michael. Kollektive Ausreise. Zur Reichweite ost- und westdeutscher Fernsehprogramme in der DDR, in: Publizistik, edition 2, Juni 2002, 47. Jahrgang, S. 200~220.
- Wentker, Hermann. Die DDR in den Augen des BND (1985-1990) - Ein Interview mit Dr. Hans-Georg Wieck, in: Vierteljahreshefte fuer Zeitgeschichte, Jahrgang 56 (2008), Heft 2.

3. 기타

Die Welt.

Washington Post.

- Bahr, Egon. Wandel durch Annaehrung, Rede in der Tutzingener Akademie. <<http://www.1000dokumente.de>>.
- Bayerischer Rundfunk (ed.). Die Medien und der Mauerfall, in: BR Fernsehen, 27.10.2014. <<http://www.br.de>>.

- DER SPIEGEL (ed.). Nr. 1/1978: DDR-Widerstand: Sehnsucht nach Demokratie.
- _____. Nr. 2/1978: Einheitsfront gegen die Stoerenfriede.
- _____. Nr. 25/1990: „Bleibt stark, wir helfen!“ – Neue Forschungsergebnisse ueber SPD-Spionageaktivitaeten im Kalten Krieg, in: DER SPIEGEL, 25/1990.
- Eibl, Franz. Interview with Gerhard Schroeder with the NDR on 4th November 1963, Bulletin 1963, S. 415.
- Globke-Plan. Original text, in: Konrad Adenauer Stiftung online. <<https://www.konrad-adenauer.de>>.
- Hoferichter&Jacobs Film/ und Fernsehproduktionsgesellschaft (ed.): Hecker, S./ Hoferichter, M.: Die SPIEGEL-Affaere Ost 1978, Leipzig 2008.
- Konrad Adenauer Stiftung. Friedensnote der Regierung Erhard. <<http://www.kas.de>>.
- _____. Geheimplan fuer die Wiedervereinigung. <<https://www.konrad-adenauer.de>>.
- Meyen, Michael/Fiedler, Anke. Blick ueber die Mauer: Medien in der DDR, 2011, i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online. <<http://www.bpb.de>>.
- Müller-Vogg, Hugo. “Nur noch wenige glaubten an die deutsche Einheit.” in: Bayernkurier, 3.10.2015. <<https://www.bayernkurier.de>>.
- Nayhauss, Dirk von. Heimatkunde, in: Cicero Online. <<http://www.cicero.de>>.
- Stoever, Bernd. Egon Bahr. “Wandel durch Annaeherung.” Rede in der Evangelischen Akademie Tutzing (Tutzingener Rede), 15. Juli 1963, Friedrich Ebert Stiftung. <<http://www.1000dokumente.de>>.
- Uhl, Matthias/Wagner, Armin. Westdeutsche Militaerspionage in der DDR, in: Deutschlandfunk online, 2007. <<http://www.deutschlandfunk.de>>.
- Wieck, Hans-Georg. BND CONTRA SOWJETARMEE Westdeutsche

Militärspionage contra Sowjetunion Buchpublikation von Armin Wagner, Hamburg, und Dr. Matthias Uhl, Moskau Ch. Links-Verlag, Berlin, 296 Seiten, 2007 Bad 14 der vom Militärgeschichtlichen Forschungsamt herausgegebenen „Militärgeschichte der DDR“ Präsentation und Rezension. <<http://hans-georg-wieck.com>>.

Zimmermann: Deutschland – ein Wintermärchen. Deutsche Teilung und Wiedervereinigung in dokumentarischen Programmen der ARD und des DDR-Fernsehens. <<https://www.mysciencework.com>>.

부 록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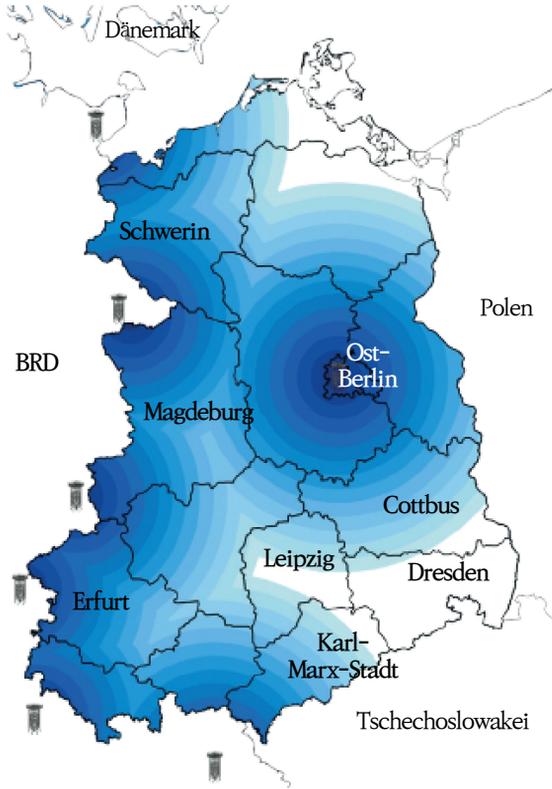
독일 통일정책의 4 시기와 시기별 동서독 지도자

시기 구분	서독 총리	1949 이후: 동독 대통령 1960 이후: 동독 서기장
1949~1963: 아데나워 시기 동독 배제	1949~1963: 콘라드 아데나워	1949~1960: 빌헬름 비크
1963~1969: 조심스러운 방향성의 전환	1963~1966: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1966~1969: 쿠르트 게오르크 키신거	1960~1973: 발터 울브리히트
1969~1982: 사회자유 연합을 통한 동방정책 성립시기	1969~1974: 빌리 브란트 1974~1982: 헬무트 슈미트	1973~1976: 빌리 스투프
1982~1989: 콜-겐서 정부 시기 동서독 관계 심화 시기	1982~1998: 헬무트 콜	1976.10 ~ 1989.10: 에리히 호네커 1989.10 ~ 1989.12: 에곤 크렌츠 1989.12 ~ 1990.4: 만프레트 게를라히

출처: Glaab, Manuela: Deutschlandpolitik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 (ed.),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6, pp. 178~189.

부 록 2

독일 내 서독 방송 신호 강도



출처: *Die Welt*, October 27, 1980; Presentation of the IWH.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행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락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수신거부 ()		
회원 구분*	학생회원 ()		일반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함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